

계시록 12장

사람과 장소

계시록 12:1-2

12장은 다양한 등장 인물들로 시작된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배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12:1-2)

본문에 묘사되고 있는 '여자'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된다.

야곱에게는 열두 아들이 있었는데, 요셉은 열한 번째 아들로써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 때문에 형제들은 요셉을 시기했다. 한번은 요셉이 꿈을 꾸었다. 꿈에 곡식을 묶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을 둘러서서 절을 했다. 그가 형들에게 그 꿈에 대해 이야기하자 형들은 화를 내며 “우리가 너에게 절을 하리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했다. 요셉은 또 다른 꿈을 꾸고 이번에는 그것을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저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요셉을 꾸짖으면서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제들이 너에게 절을 하리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꾸짖었다. 이 때 해와 달은 요셉의 부모를 가리키며 열한 별은 요셉의 열한 형제를 가리킨다(창37:5-10 참조). 이 꿈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의 형들이 곡식을 사러 그에게 옴으로써 실현되었다.

그러므로 해와 달과 열한 별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킨다.

계시록 12:3-4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어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삼분의 일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12:3-4)

계시록 12장의 두 번째 등장 인물은 머리가 일곱 개, 뿔이 열 개 달린 '큰 붉은 용'이다. 물론 이 용은 사단이다. 용은 항상 사단의 상징이 되어 왔다.

중국에서는 행진을 할 때 종으로 만든 거대한 조형물을 바닥에 깔아놓는데, 이것이 거리를 온통 휘감고 있기 때문에 마치 용이 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따른 저주로서, 뱀은 배로 땅을 기어다니게 되었다(창3:14). 그런데 중국에서도 용은 사단의 상징이라는 점이 흥미롭다.

그 용이 꼬리로 하늘의 별 삼분의 일을 끌어당긴다는 것은 아마도 사단이 타락하면서 천사의 삼분의 일을 끌어들이는 것을 가리키는 것 같다. 하나님을 배반하기 전에 사단은 하나님의 동산에 거했고, 각종 보석으로 단장하고 있었으며, 매우 아름답고, 지혜가 충만하며, 불의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그의 모든 길에 완전하였다(겔28:11-15). 사단은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를 하늘에서, 그리고 그의 지위와 권력에서 내어쫓으셨다. 그러나 사단은 여전히 하늘에 가까이 접근했다.

그 예로 옅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있었다고 한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물으셨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자 사단이 대답했다.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녔으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가 내 종 옅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옅1:6-11)고 하시자 사단은 하나님 앞에서 옅을 비난하기

시작한다. 계시록 12장에는 사단을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곧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라고 했다.(10절)

사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참소한다. 사단은 우리의 연약함과 결점들을 재빠르게 알아차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공휟하심에서 멀어지도록 한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도록 만들려고 우리의 약함을 지적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은혜를 입을 만하지 못한가를 말한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셔서 우리가 쓸모없을지라도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처음 지위를 고수하지 못한 천사들이 있었다(유 6절). 예수께서 거라사인 지방의 한 귀신 들린 자를 만나셨을 때, 그에게 이름이 무엇이나고 물으시자 그는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막5:9)라고 대답했다. 많은 악령들, 귀신, 타락한 천사, 정사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하는 사단에 동조하는 어두움과 악의 세력들이 많이 있다.

계시록 12:5-6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일천이백육십 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12:5-6)

그러나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것은 본문에 그를 가리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라고 했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진다고 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또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이심을 안다. “내게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림이여 질그릇같이부수리라.”(시2:8-9)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 예수님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고(2:26-27) 약속하신 것도 의미심장하다. 이것은 두아디라 교회가 만국을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 보좌에 앉게 되리라는 약속이다. 그러므로 보좌에 앉아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결정적인 사역일 뿐만 아니라, 이기는 자에게 속한 일이기도 하다. 이 사실로 인해 여자를 교회로, 그리고 아이를 들림받을 이기는 성도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

이같은 주장에는 실제적인 문제가 제기된다. 첫째, 성경은 “이 여자가 아이를 배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라고 했다(12:2). 교회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이다. 그런데 처녀인 교회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둘째, 아이가 빼어난 성도로서 그들만 들림받는다는 의견에도 반대한다. 이러한 견해는 은혜의 성령을 무시하는 것이다.

나는 여자를 이스라엘로 보아야 한다고 믿는다. 세번째 견해는 아이를 대환난 때에 있다가 보좌에 들림받아 하늘 나라에 있게 될 144,000명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광야로 피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환난 기간의 마지막 반인 3년 반 동안 그들을 양육하신다.

예수께서 유대인과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물었다. “주여,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마24:3, 15-17).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대로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단9:27)고 하셨다.

이스라엘이 도망하는 이 멸망의 특정한 때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것이며(단9:27), 이 말씀은 계시록 12장에도 언급되어 있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때에는 그를 숭배하도록 세상을 이끄는 거짓 선지자도 있다. 그리고 재건된 성전의 지성소에는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세워질 것이다. 이 신성 모독적인 우상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처럼 하나님의 전을 다시 한 번 더럽힐 것인데(주전 168년경),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적그리스도의 한 전형이다.

적그리스도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여 이 신성모독적 물건을 세운 후부터 1,290일이 지나면, 예수께서 큰 영광과 권세로 그분의 교회와 함께 다시 오셔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단12:11)

계시록 12:7-17

재건된 성전에서 이렇게 신성모독적인행위가 벌어질 때 하늘에서는 전쟁이 일어난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12:7)

처음 처소를 지키지 못하고 사단과 함께 하나님을 배반한 사자들이 사단의 편에 서서 미가엘과 하나님의 사자들로 더불어싸우고 있다.

〔사단이〕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12:8-9)

관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사단을 두루 다니도록 허용하셨지만, 마침내 사단이 내어쫓기는 날이 온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 날에 요한이 말한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 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12:10-11)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의 보혈로써 사단을 이겼다. 오늘날 사단과 싸워 이기는 우리의 방법도 바로 이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우리의 증거하는 말과 생명을 아끼지 않는 완전한 사랑의 헌신이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12:12)

사단이 하늘에서 완전히 내어쫓기게 되는 그 때는 얼마나 영광스럽겠는가! 즐거워하라. 이제 밤낮으로 참소하던 사단은 가고 없다.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 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 갔음이라(12:12)

사단도 자기의 때가 얼마 안 남은 것을 알고, 마지막 3년 반 동안 모든 것을 파헤칠 준비를 하고 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이스라엘〕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뱃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12:13-14)

‘한 때’는 1년, ‘두 때’는 2년, 그리고 ‘반 때’는 반 년을 말한다. 그러므로 여자는 삼 년 반 동안 ‘뱀의 낮을 피하여’ 보호받는 것이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 (물은 군대를 상징한다) 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12:15-17)

마지막 3년 반 동안 유대인들이 도망하여 있을 광야의 이 장소는 고대의 암석 도시인 페트라임이 분명하다. 페트라는 사해 남쪽, 요르단의 하르바 계곡에 위치한 아주 견고한 요새이다.

이사야서에는 셀라, 곧 페트라가 유대인들이 쫓겨날 때 그들의 피난처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하나님께서는 요르단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숨기며 압제가 지나갈 때까지 그들의 피할 곳이 되라고 명하셨다.(사16:1-4)